

리라 믿고 교회의 문을 두드린 많은 사람들이 큰 실망을 안고 출교해 버렸다. 그중의 이름난 사람으로는 이동휘, 여운형 그리고 김규식 등이 있다. 이동휘는 마르크스주의의 ABC도 몰랐던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가 레닌과 만났을 때 그의 질문에 거의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여운형도 이동휘를 따라 고려공산당에 가맹하였다. 그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승동교회 전도사로 있었던 촉망받는 그리스도인이었다. 김규식은 교회장로였다. 그러나 교회는 이들을 용납할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사회주의와의 결별 다음에 남은 것은 개인구원밖에 없었다. 그것이 순수한 그리스도교라는 것이다. 그 전통이 오늘까지 이어져오는데 ‘순’(純)자는 1930년에 생긴 말로서, 정치적 안전지대를 찾는 이들에 의해서 창출된 것이다. 순수예술, 순수문학, 순수복음, 순복음 등등.

이로써 그리스도교는 몰려온 민중의 민족적, 민중적 소원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이기주의자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런 결론은 어디까지나 표면에 나타난 현상에서 하는 말이다. 우리는 민중의 저력을 믿는다. 1930년 이래로 다 죽은 것 같은 화산맥에서, 197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활화산이 나타났듯이 민중의 소원을 스스로 이룩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4. 성서에서 본 한국 교회사

한국 교회사는 두 면에서 보아야 한다. 하나는 재래적인 지도층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평신도의 편에서 보는 것이다. 한국 교회사의 지도층은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그 성격이 정립되었

다. 약간의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들은 실상 제도권에 속하지 않았다— 지도층은 선교부의 정책에 충실한 하수인의 역할을 했다. 그것은 선교부의 계획 안에 든 역할이다. 선교부는 그들을 수족같이 부리기 위해 길러낸 것이다.

그들에게 공부할 기회도 주고 생활도 지원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지적 수준을 한정한다는 것이다. 가령 송실학교에서 학생들이 영어를 가르쳐줄 것을 요구했더니 선교사는 “사탄의 시험에 들었으니 기도합시다”라고 했다는 웃지 못할 토막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초기의 저들의 정책을 잘 반영한 것이다. 평양신학교는 설립되었으나 신학이 아니라 전도하러 나갈 단기 사관학교였다. 교육기간은 3개월뿐으로 나머지 기간은 나가 전도하는 일이었다. 하여간 그들의 수준은 자신들(선교사)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래도록 신학교육을 독점했으며, 제힘으로 미국에서 신학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경원하여 발도 못 붙이게 했다. 그리고 그들의 노선에 충실할 보장이 있는 자만 몇 사람 기용했는데, 그들의 정신상태가 오늘도 계승된 것이 바로 한국 교회는 맨 처음, 즉 선교사의 독무대시대의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이에 대해서 평신도는 민중이다. 이들의 특징은 이미 위에서 지적한 대로 민중적 한과 민족적 염원을 저들의 희망의 내용으로 하므로 성속이나 정교분리 따위를 모른다. 이것이 바로 성서적인 전통이다. 구약에는 이른바 성속의 구별이 없다. 이스라엘의 민족사가 바로 하느님의 구원사지, 그것을 떠난 구원 따위는 모른다. 그런데 그 민족사가 바로 민중사인 것이다. 에집트의 민중, 합비루가 그곳에서 탈출하여 반군주적 공동체를 이룩한 것이 아훼신앙을 확립한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이다. 이 민중운동은 군주세력과의 치열한 싸움을 계속

하다가 다윗에 의해 지하로 들어가버리나, 저들을 계속 대변한 것이 예언자들이다. 그후 반민중적 정권은 분단되었다가 다 망하고 모두 나라 잃은 민족으로 전락했으며, 계속적으로 식민지의 굴레 속에서 민중적 민족이 된 것이다. 여기 식민제국을 거쳐 근대적 성격을 띤 로마제국이 지배한 때에 예수가 등장한 것이다. 그는 예언자의 전통에 섰으며, 민중운동의 사상적 결집인 묵시문학적 풍토를 그대로 수용하고, 반예루살렘의 상징이며 민중의 현장인 갈릴래아에서 민중을 편파적으로 선택했다. 바로 그러므로 그는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바로 이 죽임당한 사건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 사건이 바로 민중운동이라는 태풍의 눈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제도적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반예수적인 길을 걸었다. 이 한국 교회가 이제라도 제 길을 걸으려면 바로 이 민중운동의 대열에 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서의 전통이며, 동시에 교회의 구성원인 민중의 염원으로 합류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정당한 길이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성서의 민중 전통과 한국 교회 구성원들의 염원을 잇는 시각도 조명해야 할 것이다.

■ 1986년 10월, K.S.C.F. 강연.